천국에서 거목과 잔챙이

(마태복음 18:1~14)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에서 거목과 잔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에서 거목과 잔챙이'
흔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거목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큰 세력을 만들었거나 재물을 많이 모았거나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기는 등의 세상 가치를 많이 가져서 인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잔챙이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여럿 가운데 가장 작고 품이 낮은 것, 지지리 못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늘 거목과 잔챙이가 관심거리가 됩니다. 타인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목하였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이 내용을 다룰 때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의 관점에 집중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크게 여겨집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재현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시고 가까이 온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

람의 평가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거목으로 여겨질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크고 작음의 경쟁에 참여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했던 제자들에게 이 대답은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자면 누가 큰지를 따지고자 하는 타산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사람의 성장과정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점점 멀어져 성인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천국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에 느끼는 존재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거목으로 여겨지고 또 어떤 사람이 잔챙이로 여겨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17장에서 본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봅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내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는 과정에서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여성과 아이들은 집계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에서 살아온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논쟁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애초에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경쟁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

가 생겨난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존재감의 기준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준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서열을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과정이 보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에서 누가 큰지를 스승이신 예수님께 묻고자 했을 뿐인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애초에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출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린 아이는 자신을 낮추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즉 앞서 3절에서 '돌이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존재감의 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란 존재감이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존재감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느끼는 존재감과 스스로 느끼는 존재감입니다. 예를 들어 왕자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왕자라는 자리에 대해 타인이 느끼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아기는 왕자라는 자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존재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거목으로 여겨지는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의 예를 들어봅니다. 대통령, 재벌 회장, 대학총장, 장관, 국회의원, 당회장 목사님, 수석장로 등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거목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린 아이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감이 제로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일들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감의 대상으로 여기든지 상관치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존재감이 없는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의 수치를 제로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존재감은 이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 권력의 최고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가치에 근거를 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인 마윈은 중국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윈의 존재감은 돈이라는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존재감을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우

리 같은 서민들은 다소 편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또한 이와는 다른 가치에서 비롯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앞에서는 부모이며 또 부모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조차 어린 아이의 존재감처럼 없어져야만 한다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동일하게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획득하거나 높이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서 행복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존재감을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태어났든 고대광실에서 왕자로 태어났든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래에서 기쁘게 소리치며 뛰어노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타인에게서 비롯된 존재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인상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중독 노숙자들이 셰퍼드 품종의 송아지만한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개는 먹입니다. 그 개들은 주인이 알코올중독 노숙자든 고급저택에 사는 부유층이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정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알코올중독이라고 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급주택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인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거목으로 여겨지는 자들의 특징은 부모를 가진 어린 아이나 주인을 가진 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거목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획득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유는 마음을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이 아무리 나를 대단하게 여기더라도 내가 느끼는 행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연예인들이 그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마약이나 유흥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만족 즉 스스로의 존재감에서 비롯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아빠만 있으면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모아서 존재감을 높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존재감은 가치 획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에 조금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축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거목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손을 닦고 버린 빵조각으로 연명합니다. 어느덧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만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천국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세상 가치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거지였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나사로가 거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가치 없이 인생을 살아냈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빌 게이츠나 마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천국에 간다고 한들 잔챙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연예인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 게이츠나 마윈의 자기 존재감이 이들이 가진 재산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총장이라도 그 자리가 마음에 전혀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자기 존재감의 근거가 막대한 재산에 종속되어 있다면 재산이 없어지는 순간 기쁨과 만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크고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이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는 잔챙이 중의 잔챙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과 재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삶이 궁핍해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큰돈을 받으며 다니던 회사도 아니었기에 백수가 되었어도 잃게 되는 자기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벌이 회사를 통째로 잃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이 80~90년대에 정부 주도 하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벌에서 백수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목사님과 임원들의 대립으로 인해 교회가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목사님을 나가라고 하고 목사님은 안 나가겠다고 성도들에게 호소하며 버팁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붙잡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자기 존재감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자기 존재감을 낮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 잔챙이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인이 다섯 명도 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천국에서 거목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니 수호천사와 같은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천사들은 천국에서 거목으로 여겨지는 자들의 팬클럽과 같을 것입니다. 교인은 다섯 명밖에 되지 않으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목사님을 천사들이 볼 때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이 천국의 스타이고 영웅이며 거목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몇 만 명의 교인이 없으면 불행한 목사라고 한다면 잔챙이에 불과합니다.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 이 세상 것이 크고 많이 필요할수록 천국에서는 잔챙이로 여길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크고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이켜 어떠한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를 축출시키는 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놓고 세상에서 비롯된 존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축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은 그 동안 유익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가치들이었습니다. 돈 명예 학식 집안을 비롯한 세상의 가치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빈민촌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엄마아빠만 있으면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데려다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 아래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마음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거목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돌이켜’라는 한 마디 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십자가 생활화는 바로 돌이키는 삶을 위함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명예나 성공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취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고 천국의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잘 할수록 천사들의 스타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천국에서 거목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세상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다든지,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절대 놓을 수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잔챙이 중에서도 잔챙이입니다.
이러한 잔챙이들의 마음을 가진다면 선민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은 거목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경쟁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잔챙이들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작든 크든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빌게이츠는 엄청난 거목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잔챙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빌게이츠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면 거목 중의 거목이 될 것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못해서 재벌기업이 자기 존재감의 근거가 된다면 잔챙이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잔챙이 중의 잔챙이를 거목 중의 거목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기쁘고 만족함에는 세상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알고 모두 다 천국의 거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하나 바라보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가치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추구하려는 원죄적 속성이 끊임없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은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